6 · 25전쟁에 종군하였던 한 미군병사, Farnsworth 씨의 80회 생일파티에 참석하다

약학대학 제약학과 이 은 방

지난 3월 22일 미국 Chicago의 Holiday Inn(Plaza-Mart)에서 Norman R. Farnsworth 씨의 80회 생일 Party가 있었다. 약 300여 명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 들었다. Farnsworth 씨는 대학교 재학 중에 징병되었으며, 한국에 배치되어 6 · 25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종군하였던 역전의 용사이었다. 당시, 추운 겨울에 중공군에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에, 상사의 명령과 관계없이 11명의 병사를 데리고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그는 1950~1951년에 한국 전쟁 일선에 있으면서 많은 수훈을 인정받았는데, Korean Campaign Ribbon with Four Battle Stars, Combat Medical Badge, Bronge Star Medal; Bronze Star Medal with "V" Device 등을 받았다. 그의 소속은 US Army, Third Infantry Division, 7th Regimental Combat Team, Korea 이었다.

그날 생일파티에서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꽃다발과 선물을 선사하였고, 나는 작은 그림을 선사하여 감사의 악수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축하분위기 속에서 그의 답례 연설이 있었다. 그는 한국의 6 · 25전쟁 당시에 추운 산속에서 고생하며 탈출한 얘기가 주된 것이었다. 키가 185cm가량의 거구로서, 쩌렁쩌렁한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땅에서 사경을 넘나들던 그를 생각하니, 나로서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송구스러운 감정을 억누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행사의 작은 책자에는 자기의 졸병사진이 올려져 있고, 그 밑에는 Korean War Veteran이라고 씌어져 있다.

현재 그는 Illinois 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며 Illinois 대학교의 Distinguished Professor로서,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생약학의 세계 1인자로 인정받으며, 이 분야의 Great man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는 1959년도에 미국생약학회를 창설하였고, 독일의 H. Wagner 교수와 함께, 유명한 학술잡지인 Phytomedicine을 창간하였으며, 세계의 천연물연구 data base인 Napralet를 구축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쓰는 약의 75%는 식물에서 나왔고 앞으로도 식물에서 약물을 찾아야 한다고 늘 주장해 온 분이다. 그는 1976년에 식물로부터 피임약을 연구할 목적으로 WHO에서 세계적인 연구 project를 획득하여 여러 나라(미국, 영국, 한국, 홍콩, 인도, 스리랑카)와 공동연구를 주관하여 왔는데, 우리 약학대학 천연물연구소와도 12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우리 대학교에도 여러 번 내왕

한 바 있다.

나는 그 연구실에서 연락을 받고서는 망설이다가 참가하였는데, “thank you for coming” 이라며 반가워 하였다. 이 날 행사는 herbal supplement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이루어 졌고, 각국에서 모여들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왔다. 독일 뮌헨대학교의 H. Wagner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 연구실에서 훈련받은 한국인 박사가 약 6명이 있으나, 대학 개강 시기이기 때문에 참석치 못한 것이 아쉬웠고, 나만이라도 참석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다음 날인 23일에 약 40명을 brunch에 초청하였는데, 옛날에 공동 연구하였던 결과가 늦었지만, 곧 단행본으로 출간 예정이란다. 당시의 공동연구자인 Fong, Waller, Soejarto, Bingel 교수도 반갑게 만날 수가 있었다.

곧 6 · 25전쟁 60주년이 다가온다. 60년 전의 역사지만, 우리는 당시의 여러 참전국의 용사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은 아직도 많이 생존하고 있다. Farnsworth 교수는 저명한 교수이기 전에 한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석한 은인으로 기억하여야 하겠다. 이에 나로서는 이 분을 우리의 재향군인회에서 초청하여 내년에는 한국 전선을 구경하도록 해 놓았다. 그는 나이 80세에도 아직 퇴직하지 않고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건강하고, 그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바이다.